

#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강진경 ·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간발달학과

본 연구는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애착 발달 과정을 탐색하고, 'maternal strength hypothesis'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현재 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 대상자 36명(남성 20명, 여성 16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성인기에 있는 대상들의 낭만적 애착 성향은 그들이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내적 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은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보다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maternal strength hypothesis'가 지지되었다. 그리고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성향의 관계를 청소년기의 내적-모델 즉, 자아개념이 매개하는 지를 탐색한 결과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를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애착의 전 생애적 발달 및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생애 초기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후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된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인 발달과 함께 한 개인은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지를 안내하는 자신만의 신념, 기대, 태도 그리고 사회적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된다.

애착이란 개념은 Bowlby(1958)가 생애 초기 모성결핍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

념으로, “인간이 특정한 타인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는 성향”을 의미한다(Bowlby, 1977, p. 201). 생애 초기에 주요 애착대상과 형성한 강한 유대 관계는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Ainsworth, 1969; Bowlby, 1973). 이러한 애착의 전 생애적 발달은 성인의 낭만적 애착 유형<sup>1)</sup>이 체계적으로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Bringle & Bagby, 1992;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Levy, Blatt, & Shaver, 1996).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정적 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아동기의 부모에 대해 따뜻하고,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회피적 유형의 성인들은 부모가 냉정하고, 거부적이었다는 표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불안-양가적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성인들은 부모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혼합되어 있는 내적 표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회고식 척도를 사용한 연구(Brennan & Shaver, 1993; Levy et al., 1996; Main, Kaplan, & Cassidy, 1985)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성인의 애착 성향과 더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maternal strength hypothesis’라 부른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

는 기제는 ‘작동모델(working model)’이라는 내적 표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Bowlby(1973)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 있는 중요한 타인들에 대해, 그리고 자아에 대해 발달하는 내적 표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내적 작동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생애 초기 영아와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영아 자신의 행동들, 그리고 이런 행동들로부터 영아가 받는 피드백 등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게 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내적 작동모델의 기본적인 특성은 “나는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인가?”와 “내가 만나는 타인, 즉 애착대상은 믿을만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돌봐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영한다(Bowlby, 1973). 이에 대한 답변은 자아에 대한 모델과 타인에 대한 모델로 내면화되며, 이는 이후 개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애착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이끌게 된다(Bretherton, 1985; Sroufe & Waters, 1977). 따라서 영아의 작동모델의 본질은 생애 초기에 양육자가 영아의 욕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지적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따뜻하고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의 영아는 자신이 사랑스럽고, 타인들은 반응적이고 믿을만하다는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나 안락감과 안정감을 얻으려는 영아의 노력을 양육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영아는 타인들은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거나, 아

1) 성인기의 애착 유형은 크게 3범주와 4범주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데, 3범주 모델로는 안정적, 회피적, 불안-양가적 유형(Hazan & Shaver, 1987), 4범주 모델로는 안정적, 몰두된, 거부적-회피, 두려운-회피 유형(Bartholomew, 1990)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의는 강진경(2001)과 장휘숙(1999)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니면 그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족적이어서 한다는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반응이 비일관적이면 영아는 타인이 도움을 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은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Klohn & John, 1998).

이렇게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작동모델은 기억과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도식으로 구성되는데(Fiske & Taylor, 1984; Main, et al., 1985), 단순한 인지적 도식과는 달리 작동모델은 기술적인 인지적 구성요인 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방어적인 인지적 구성요인까지도 포함하므로(Bretherton, 1985),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을 꽤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 또한 작동모델은 두 개인간 상호작용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자아 및 타인에 대한 모델은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확증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Bowlby, 1973; Bretherton, 1985). 이러한 특성의 내적 작동모델은 생애 초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동을 하게 되다가, 애착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모델이 구성, 강화되면 점차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게 되며,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애착과 관련된 과정 및 성격의 역동성을 통제하게 되면서 애착의 안정성 및 연속성의 기제가 되는 것이다(Bowlby, 1988).

지금까지 작동모델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작동모델에 대한 예측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개념과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는 기존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왔다(Shaver, Collins, & Clark,

1996; Shaver & Hazan, 1993). 양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인애착연구에서 내적 작동모델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자아-모델 차원의 측면은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아회복력, 자기효능감 등의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타인-모델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교성, 인간본성에 대한 신념, 대인간 온정성 등의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 Shaver, 1987; Collins & Read, 1990).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모델은 관계에 대한 신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낭만적 사랑의 과정에 대한 지각, 관계에 대한 책임감, 관계만족도 등으로 측정하였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Simpson, 1990).

Bowlby의 애착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기의 사회·정서 및 인지 발달(Aber & Allen, 1987; Bretherton, et al., 1990), 청소년기의 사회·정서 및 자아개념의 발달(Cooper, Shaver, & Collins, 1998; Kobak & Sceery, 1988), 성인기 및 노년기의 친밀한 관계와 일(Bartholomew & Horowitz, 1991; Cicirelli, 1991;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1990),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Mikulincer, Florian, & Tolmacz, 199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연구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애착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애착이론이 동물 행동학적, 정신분석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인지학적인 관점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 애착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애착연구는 대체로

20C 중반부터 임상가들에 의해 기관에서 양육되거나, 극도로 학대받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심리적인 발달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George & Main, 1979; Goldfarb, 1945). 이후 애착연구는 Ainsworth와 Wittig(1969)에 의해 고안된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촉진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에 따른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Crockenberg, 1981). Bowlby는 애착의 과정이 영아기나 아동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1979, p. 129)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성인기에 나타나는 애착의 여러 현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하였으나(Bowlby, 1973, 1980), 성인기 애착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icirelli, 1991; Hazan & Shaver, 1987, 1990). 특히 성인기의 애착 연구는 주로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낭만적 애착 성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였다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낭만적 애착 관계를 살펴본 연구(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1990; Kirkpatrick & Davis, 1994; Simpson, 1990)에 따르면 개인의 애착유형 및 관계의 애착유형 조합에 따라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안정적 애착유형의 대상들은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사교성, 개방성,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밀감, 신뢰감, 책임감 등의

수준이 불안정한 유형의 대상들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반면 회피형이나 불안형의 대상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 관계만족도 수준이 낮았고, 관계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리고 갈등의 소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llins와 Read(1990)는 애착유형 이외 친밀, 의존, 그리고 불안이라는 애착의 세 차원들이 낭만적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파트너의 애착의 차원이 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낮가림 혹은 격리불안을 애착의 지표로 보고, 이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통하여 연구하였다(장영미, 1978; 정영숙, 1976; 차재호, 1985).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낯선 상황 실험 등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주로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유형 및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종순, 1989; 나유미, 1997; 박용임, 1994; 송지연, 1989). 반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는 주로 세대간의 애착유형의 전이,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그리고 이성간의 낭만적인 애착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강진경, 최혜경, 1996; 박의순, 1997; 유은희, 박성연, 1989;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지금까지 보고된 애착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종합해보면 첫째 전 생애적 발달의 관점에서 애착연구의 영역이 점차 생애 초기에서 생애 후기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둘째 애착을 측정하는 다차원적인 도구의 개발로 애착이론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심층적으로 검증되고 있고, 셋째

연구의 초점이 애착이론의 핵심 주제인, 애착유형에 따른 발달의 개인차와 애착의 안정성의 기제가 되는 내적 작동모델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애착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성인기 이후의 애착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성인애착 척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는 내적 작동모델의 형성이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애착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 종단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과 비용의 제한으로 인한 자료의 부족으로 장기 종단연구 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낭만적 애착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전 생애적 발달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성인 애착 척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리고 애착의 발달을 탐색하기 위해 장기 종단적인 연구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197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온 장기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애착이론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장기 종단연구 자료가 부족한 한국의 연구 실정에서 비록 연구 대상자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로 인해 소수가 남았으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애착의 발달을 검증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성향이 아동기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 즉 내적 표상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자아-모델 즉, 자아개념으로 내면화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Bowlby(1973)의 이론

을 간략하게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위 'maternal strength hypothesis'(Mickelson et al., 1997)라는 가설이 우리 문화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중 어떤 표상이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성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기에 나타나는 개인의 낭만적인 애착 성향은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즉, 자아-모델은 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가? 둘째, 개인의 낭만적인 애착 성향은 아동기 부-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 중 어느 변인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가?

##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1976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해 온 종단연구 대상자로 2000년 현재 만 26세의 성인기에 있는 남녀 36명(남성 20명, 여성 16명)이었다. 한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종단연구는 한국아동의 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 성장발달과정을 탐색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 계획"(이성진, 김광웅, 1976)의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1975년 3월에 출생한 신생아로 서울 시내 10개의 병원에서 무선표집 되었으며, 2001년까지 총 33차의 조사가 26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광웅, 김은실, 김기웅, 이성진, 1976; 이성진, 1998 참조).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의 원래 표본은 남녀

아동 115명(남아 64명, 여아 51명)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0년(제 32차) 자료 수집에 참여한 37명 중 기혼자인 1명을 제외한 36명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36명은 모두 미혼으로 연령은 만 26세이며, 월 평균 가족소득은 약 300만원이었다. 연구조사 당시 대상자의 직업은 학생이 13명(36.1%),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가 2명(5.6%), 회사원이 9명(25%), 전문직이 2명(5.6%), 군복무 중이 3명(8.3%), 기타 7명(19.4%)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연인이 있는 대상자는 17명(47.2%)이었고, 이들의 교제기간은 2개월에서 6년 5개월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평균 교제기간은 28.5개월(SD=24.4)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성인기 애착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0년(제 32차)에 만 26세의 종단연구 대상자들에게 응답케 한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인애착척도는 세 가지 애착유형(안정적 유형, 불안-양가적 유형, 회피적 유형)을 측정하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다. Collins와 Read(1990)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애착의 세 가지 기본적인 차원 즉, 필요할 때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존),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사랑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관계에서 불안을 반영하는 정도(불안), 그리고 타인의 접근과 친밀감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친밀)를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각 요인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주축요인분석법을 사각회전 방식으로 회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sup>2)</sup>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와 유사한 세 가지 하위요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3 이하로 나타난 두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불안’ 요인이 .80, ‘친밀’ 요인이 .78, ‘의존’ 요인이 .65였다.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0년(제 32차)에 만 26세의 종단연구 대상자들에게 응답케 한, 아동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대한 회고식 6문항(Hazan & Shaver, 1987)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부모의 따뜻한/반응적, 냉담한/거부적, 양가적/비일관적 양육에 대한 내적 표상을 나타낸다. 대상자들은 과거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았다”(1)에서 “매우 그러했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해당되는 부모의 양육유형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자아에 대한 작동모델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1991년(제 23차)에 만 16세였던 현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아개념 척도(정원식, 1965)<sup>3)</sup>에서 사회적 자아개념 문항과 가정적 자아개념 문항을(총 36문항)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보는 자아개념이며, 가정적 자아개념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 정도와 자신의 인간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정도, 그리

2) 종단연구의 사례수가 36명이었기 때문에 종단연구 대상자들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성인기 초기(평균연령 21.3세, SD = 2.5)에 있는 남녀 540명(남270명, 여270명)의 자료를 합한 576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자아개념과 가정적 자아개념은 각각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김지영, 김정화, 이성진, 1992 참조). 사회적 자아개념과 가정적 자아개념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56과 .73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두 자아개념의 평균점수가 사용되었다.

**연구절차와 자료분석.**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0년(제 32차)에 실시한 조사는 3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종단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60부가 우편으로 배포되었고, 이 중 37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61.7%). 회수된 37부 중 기혼인 1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36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및 AMOS 4.0 Program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 간의 인과관계 및 청소년기 내적 작동모델의 매개변인 역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는 적합도 지수가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합도 지수로서 NNFI(TLI와 동일), CFI, RMSEA를 선정하여 모형평가 결과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NNFI와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최악의 모형인 독립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며, 두 지수 모두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반면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데, 대략적인 기준으로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총 2가지의 모형이 검증되었는데, 각 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각 경로모형에서는 이론변인과 이론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측정변인의 계수 값을 1.00에 고정시켰다.

- 3) 정원식(1965)이 제작한 자아개념 척도는 자아개념을 내적 자아준거체계(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정적 자아)와 외적 자아준거체계(자아존중감, 자기만족 혹은 자기수용, 자기행동경향)로 분류하고 있는데, 내적 자아준거체계에 포함되는 각각의 자아개념은 3가지 영역의 외적 자아준거체제로도 분류될 수 있다. 종단연구에서 자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론변인)의 측정변인으로 사회적 자아개념과 가정적 자아개념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한 것은 이 문항들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아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유사한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여 작동모델을 연구한 Griffin과 Bartholomew(1994)의 연구에서 구조 모형을 통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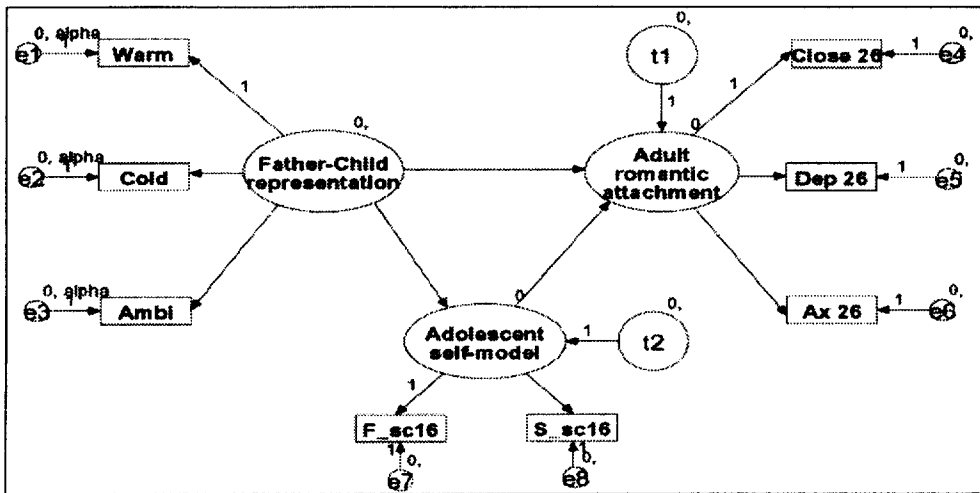


그림 1. 아동기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관계의 모형(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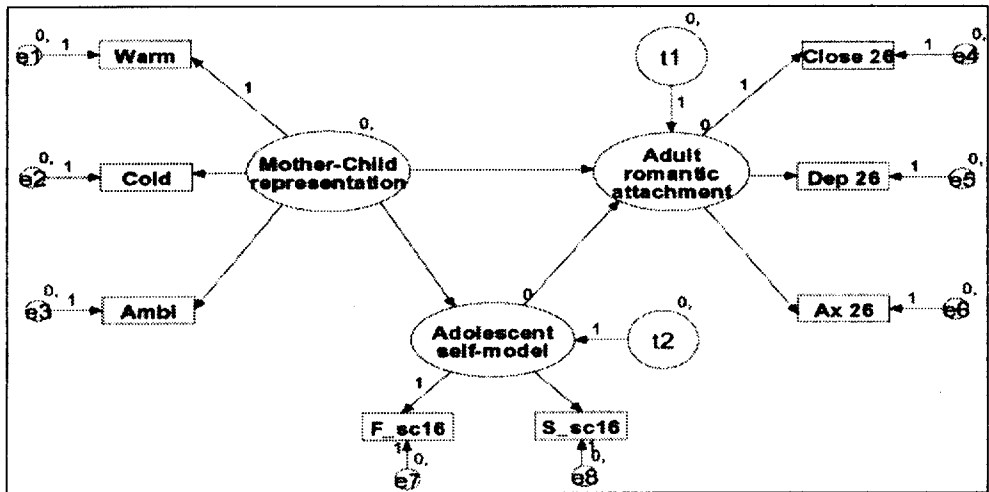


그림 2.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관계의 모형(모형 2)

주) Warm: 아동기 따뜻한/반응적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Cold: 아동기 냉담한/거부적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Ambi: 아동기 양가적/비일관적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F\_sc16: 16세 때 가정적 자아 개념, S\_sc16: 16세 때 사회적 자아개념, Close 26: 26세 때 친밀, Dep 26: 26세 때 의존, Ax 26: 26세 때 불안



## 결 과

현재 성인기에 있는 개인들의 낭만적 애착 성향은 그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maternal strength hypothesis'를 탐색하기 위하여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두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모형에 대해  $\chi^2$  검증과 적합도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두 가지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모형에 포함

된 모든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SEM의 계수 산출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분포의 가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공변량 구조모형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1이하이면 정상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고, 절대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적을 때는 편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2보다 클 경우에는 공변량 구조모형의 미지수 추정에 위협이 된다(조선배, 1996). 표 1에 따르면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대체적으로 절대값이 1 이하로 비교적 정상분포의 가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표 1. 아동기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 자아-모델, 성인기 낭만적 애착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치(N = 36)

변인	평균(SD)	왜도	첨도	최소	최대
아동기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F_warm	3.33( 1.20)	-.378	-.672	1	5
F_cold	1.44( .81)	2.764	10.014	1	5
F_ambi	2.61( 1.10)	.175	-.875	1	5
M_warm	3.89( .98)	-.540	-.616	2	5
M_cold	1.22( .54)	2.451	5.280	1	3
M_ambi	2.19( 1.04)	.401	-.961	1	4
청소년기(16세) 자아-모델					
F_sc	2.97( 9.76)	-.286	-.487	1	5
S_sc	2.97(10.28)	-.247	-.693	1	5
성인기(26세) 낭만적 애착					
Close	3.63( .77)	-.335	-.764	2	4.8
Dep	3.05( .81)	-.020	-.358	1.33	4.67
Ax	2.05( .55)	-.106	-.817	1	3

주) F\_warm: 아동기 따뜻한/반응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F\_cold: 아동기 냉담한/거부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F\_ambi: 아동기 양가적/비일관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M\_warm: 아동기 따뜻한/반응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M\_cold: 아동기 냉담한/거부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M\_ambi: 아동기 양가적/비일관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F\_sc: 가정적 자아개념, S\_sc: 사회적 자아개념, Close: 친밀, Dep: 의존, Ax: 불안

알 수 있다. 그러나 F\_cold와 M\_cold 변인의 경우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이 2보다 크게 나타나 정상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 1. 아동기 부-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

먼저 아동기의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과 관련된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모형 1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행렬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연구 대상들이 아동기에 아버지가 자신의 애착욕구에 대해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가 냉담하거나 거부적이지 않았으며( $r = -.453$ ), 비교적 일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36$ ). 또한 아동기에 아버지가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는 내적 표상을 지니고 있는 대상들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자아-모델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r = .350$ ).

이외에도 청소년기에 가정적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던 연구 대상자들은 사회적 자아개념도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r = .492$ ). 즉,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인간적 가치가 가족원들에게 인정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릴수록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모델 즉, 가정적 자아개념( $r = .345$ )과 사회적 자아개념( $r = .399$ )을 형성했수록 26세가 되었을 때 친밀한 관계에서 타인과 가깝게 지내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정적인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12$ ). 그리고 대상자들이 성인기에 낭만적 애착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낄수록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95$ ).

표 2. 모형 1 측정변인의 상관행렬(N=36)

변인	F_warm	F_cold	F_ambi	F_sc	S_sc	Close	Dep	Ax
F_warm	1.000							
F_cold	-.453**	1.000						
F_ambi	-.636**	.295	1.000					
F_sc	.117	-.292	.070	1.000				
S_sc	.350*	-.132	-.170	.492**	1.000			
Close	.291	-.211	-.081	.345*	.399*	1.000		
Dep	.127	-.181	.129	.412*	.237	.695**	1.000	
Ax	-.113	.135	.077	-.154	-.264	-.077	-.257	1.000

\*  $p < .05$ , \*\*  $p < .01$ .

주) F\_warm: 아동기 따뜻한/반응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F\_cold: 아동기 냉담한/거부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F\_ambi: 아동기 양가적/비일관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F\_sc: 가정적 자아개념, S\_sc: 사회적 자아개념, Close: 친밀, Dep: 의존, Ax: 불안

표 3. 모형 1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p	TLI	CFI	RMSEA
모형 1	22.21	19	0.274	0.992	0.996	0.070

이상의 상관행렬을 기초로 모형 1을 분석한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경로 계수값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따르면, p 값이 0.274로 이론모형이 전집자료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고, RMSEA는 .08 이하로 나타나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경로 계수값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기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은 성인기 낭만적 애착에 대해 총 변량의 4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기의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은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에 대해 총 변량의 1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의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은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에 대해  $\alpha = .07$  수준에서 유의한<sup>4)</su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었다고 지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모델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은 성인기에 형성한 낭만적인 애착 관계에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소년기의 변인이 아동기의 변인과 성인기의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의 변인과 성인기의 변인만을 모형에 포함시켜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사이의 경로 계수는 .1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해 총 변량의 3%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의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에 대해 청소년기의 내적-모델의 매개 효과<sup>5)</sup>는 없었다.

4)  $\alpha = .07$ 은 엄밀히 말해 'marginally significant'하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수준으로 언급하였다.

5) Baron과 Kenny(1986) 그리고 Jubb와 Kenny(1981)는 매개효과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에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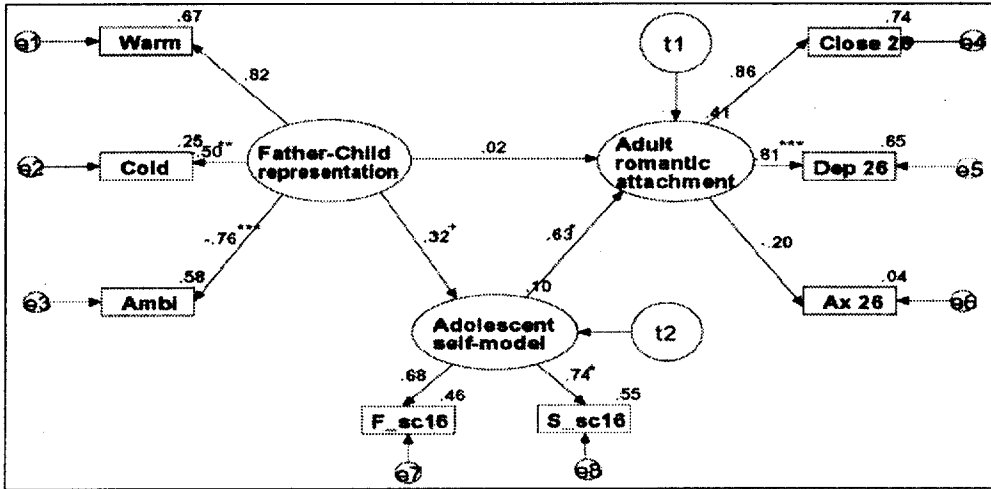


그림 3. 모형 1 분석

\*  $p < .07$ .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Warm: 아동기 따뜻한/반응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Cold: 아동기 냉담한/거부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Ambi: 아동기 양가적/비일관적 아버지에 대한 내적 표상 F\_sc16: 16세 때 가정적 자아개념, S\_sc16: 16세 때 사회적 자아개념, Close 26: 26세 때 친밀, Dep 26: 26세 때 의존, Ax 26: 26세 때 불안

## 2. 아동기 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

다음으로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를 살펴보았다. 모형 2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행렬은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들이 아동기에 어머니는 따뜻했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가 냉담하거나 거부적이지 않았으며( $r = -.546$ ), 비교적 양육이 일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r = -.541$ ). 그러나 아동기의 어머니가 냉담하고, 멀게 느껴졌으며,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고, 비일관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r = .431$ ).

아동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통계치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아동기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 낭만적 애착 변인간에는 유의한 통계치가 나타났다. 즉, 아동기 때 어머니가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한 대상자들은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에서 친밀감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42$ ). 반면 아동기에 어머니가 차갑고, 거부적이었다는 내적 표상을 지니고 있는 대상자들은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 불편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r = -.354$ ), 상대방을 믿고, 의존하는 것도 불편해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r = -.335$ ).

이상의 상관행렬을 기초로 모형 2를 분석한

표 4. 모형 2 측정변인의 상관행렬(N=36)

변인	M_warm	M_cold	M_ambi	F_sc	S_sc	Close	Dep	Ax
M_warm	1.000							
M_cold	-.546**	1.000						
M_ambi	-.541**	.431**	1.000					
F_sc	.317	-.336	-.211	1.000				
S_sc	.312	-.118	-.242	.492**	1.000			
Close	.442**	-.354*	-.161	.345*	.399*	1.000		
Dep	.288	-.335*	.046	.412*	.237	.695**	1.000	
Ax	-.030	.111	-.023	-.154	-.264	-.077	-.257	1.000

\*  $p < .05$ . \*\*  $p < .01$ .

주) M\_warm: 아동기 따뜻한/반응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M\_cold: 아동기 냉담한/거부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M\_ambi: 아동기 양가적/비일관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F\_sc: 가정적 자아개념, S\_sc: 사회적 자아개념, Close: 친밀, Dep: 의존, Ax: 불안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경로 계수값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따르면,  $p$  값이 0.406으로 이론모형이 전집자료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고, RMSEA도 .05 이하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 제시된 경로 계수값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기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은 성인기 낭만적 애착에 대해 총 변량의 4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은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에 대해 총 변량의 2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은 청소년기의 자아 모델에 대해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어머니에 대해 따뜻하고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모델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모형 2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p	TLI	CFI	RMSEA
모형 2	17.73	17	0.406	0.998	0.999	0.035

또한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은 성인기에 형성한 낭만적인 애착 관계에  $\alpha=.07$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아-모델이 긍정적이었던 대상자들이 성인기에 형성한 낭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의존성에 편안함을 느끼며, 사랑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소년기 변인의 매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의 변인과 성인기의 변인만을 모형에 포함시켜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사이의 경로 계수는 .48로 나타났으며, 이는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이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해 총 변량의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형성한 내적 모델이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 효과를 산출한 결과 총 매개효과는 0.265로 나타났다.

모형 2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연구 대상자들이 아동기에 형성한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은 청소년이 되었을 때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동기에 어머니가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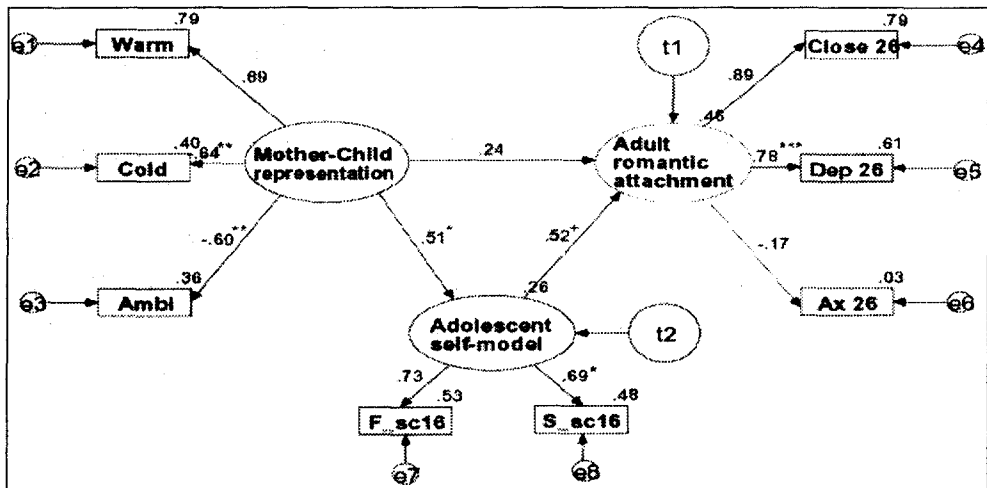


그림 4. 모형 2 분석

\*  $p < .07$ .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Warm: 아동기 따뜻한/반응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Cold: 아동기 냉담한/거부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Ambi: 아동기 양가적/비일관적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F\_sc16: 16세 때 가정적 자아 개념, S\_sc16: 16세 때 사회적 자아개념, Close 26: 26세 때 친밀, Dep 26: 26세 때 의존, Ax 26: 26세 때 불안

들은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었고, 이들은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에서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생애적으로 발달하는 애착의 연속성(Bowlby, 1973)을 지지하는 것이다.

## 논 의

개인과 개인이 만나게 될 때, 그들은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세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자신들만의 기억, 신념, 기대, 그리고 사회적 경험의 역사를 이미 가지고 관계를 시작한다. 이러한 정신적 표상은 삶 속에서 대인관계 망이 확장됨에 따라 계속 발전되는 것이지만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된 인지적 모델의 영향력은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Bowlby(1973)에 의해 제시되고, 이어 Bretherton (1985)과 Main 및 동료들(Main, 1991; Main, et al., 1985)에 의해 연구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성격의 핵심적 특성으로, 애착체계가 표현되는 방식을 형성하며, 이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이 애착의 연속성의 기제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 종단연구 대상자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기의 애착 성향이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 및 청소년기 자아-모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형성한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와 부모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Maccoby, 1992).

작동모델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중요한 애착 대상들과 가진 자서전적인 기억들이다(Collins & Read, 1994). 이는 구체적인 상호작용과 사건들에 대한 표상뿐 아니라 그러한 경험에 대한 평가와 해석까지 포함된다. 애착과 관련된 경험은 정서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들 또한 정서적 요인들을 지니게 된다. 물론 자서전적인 기억들은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지 구조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기억 속에서 여과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현재의 평가와 해석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Collins & Read, 1994).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은 새로운 정보와 인생 경험을 통해 재구조화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Ross & Conway, 1986). 애착과 관련된 기억들이 작동모델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제안은 애착 유형에 따라 성인들의 자서전적 기억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연구(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Main, 1991; Main et al., 1985)에서도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반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한 Main 등(1985)은 현재 성인기에 안정적 애착유형을 가진 대상들이 모두 그들의 부모를 따뜻하고 애정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본 연구 결과에서 성인기 낭만

적 애착이라는 이론변인에 대해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청소년기 자아-모델의 설명력이 전체 변량의 46%로 나타났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즉, 성인기의 애착 관계는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내적 모델이나 청소년기에 형성한 자아-모델만을 반영하지는 않으며, 애착의 주 욕구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다른 관계들(예를 들면,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 친밀한 또래들 등, 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1992; Hazan & Zeifman, 1994)도 성인기의 애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아동기 이후에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이외의 다른 중요한 애착 관계를 통하여 애착의 작동모델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한 개인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Epstein & Erskine, 1983)를 통해 기존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일치하지 않은 관계 경험이 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는 개인 내적인 경험 -예를 들면, 과거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Main, 1991)에서 제시한 'meta-cognitive monitoring' 등-을 통해 작동모델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Bowlby (1973)는 애착이론의 중요한 가정으로 생애 초기에서 성인기까지 작동모델들이 극적인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모델들은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 조정되고, 재구성되며, 보다 정교해지는 능동적인 구조라는 점도 제시하였다(Bowlby, 1988).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애착의 작동모델의 안정성과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안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변화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논의할 문제는 모형 1과 모형 2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 것과 관련된다. 즉, 연구 대상들이 아동기의 아버지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내적 표상은 성인기 낭만적 애착 관계와 거의 무관하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은 성인기 낭만적 애착 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애착 모델의 망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인기의 애착 표상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내적 모델들의 망이라고 본 연구자들(Collins & Read, 1994; Hollan, Holyoak, Nisbett, & Thagard, 1986)에 따르면, 이러한 망은 위계를 따라 조직된다고 한다. 위계의 상위부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상에 대응하는 모델이며, 이는 양육자(수직적 관계) 및 또래(수평적 관계)와의 관계 경험의 역사로부터 추출된 것이라고 한다. 반면 위계의 하위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보다 특정하고 구체적인 관계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애 초기에 작동모델은 주 양육자와의 특정한 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이러한 표상은 자아 및 타인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모델로 발달하게 되며(Bowlby, 1973), 이는 이후에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보다 특정한 모델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인기에 어느 한 관계에 대해 개인이 발달시키는 모델은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모델에 기초한 기대'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애 초기에 발달한 모델은 어느 정도는 이후 맺어지는 모델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통



해 형성된 특정한 모델은 보다 일반적인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새롭게 갱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애착 표상의 다차원적인 조직 망 속에서 Collins와 Read(1994)는 모델의 힘이 강하고, 작동모델의 특성과 상황이 조화를 이룰 때, 애착 모델이 활성화되고, 사용된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모델의 힘이란 그 모델의 기본이 되는 경험의 양과 그 모델이 과거에 적용되어왔던 빈도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망 구조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보다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며,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문화권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기초한 모델은 아버지에 대한 모델보다 더 많은 경험에 기초하고, 더 많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기초한 모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aternal strength hypothesis'는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들이 청소년기 때 형성한 자아-모델이 아동기의 부모와의 관계와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한 결과,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를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은 청소년기 자아-모델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은 다시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애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애착의 작동모델은 인지적인 발달 및 환경과의 교류가 점차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보다 더 정교해

지고, 복잡해지며, 추상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Klohn & John, 1998). 초기 작동모델은 주로 영아와 주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서 기능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관적인 양육의 질과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점차 관계의 특성이 라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으로 굳어지게 된다. 일단 작동모델이 형성되면 모델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극적인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Bowlby, 1979). 또한 애착과 관련된 자아에 대한 신념은 자아개념 또는 자아-도식의 주요한 구성요소 (Markus, 1977; Greenwald & Pretkanis, 1984)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상은 애착과 관련된 자아에 대한 현재의 이미지나 평가뿐 아니라 과거의 자아상(Kihlstrom & Cantor, 1983), 그리고 미래 자아에 대한 기대(Markus & Ruvolo, 1989)까지 포함하게 된다. 도식을 대인관계에 적용한 Baldwin(1992)은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 자아상, 타인상,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대인 스크립트를 포함하는 관계-도식으로 조직된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아동기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과 관련된 신념은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자아 및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식과 표상이 성인기의 주요한 애착 관계 속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성향의 기원 및 애착 발달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maternal strength hypothesis'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장기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기의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은 청소년기 자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낭만적 애착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성향의 원인을 장기 종단연구 자료를 통해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애착 역사에서 밝혀냄으로써 전 생애적인 관점에 기초한 애착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는데서 연구의 주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서 지적이 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는 다음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장기 종단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오랜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그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대상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 아동기 내적 표상 및 청소년기의 자아-모델의 측정변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변인들을 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이 성인기에 응답한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문항들은 회고식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 상황이 내적 표상에 대한 응답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제한점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작동모델은 애착의 연속성의 중요한 기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개념은 다소 모호하고, 개념정의를 명확하지 않으며, 작동모델이 성인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한 명확히 이해되지 못했다. 따라서 성인기의 애착 연구에서는 애착의 핵심 개념이 되는 작동모델을 보다 주의 깊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작동모델의 안정성과 변화는 전 생애적으로 발달하는 애착이론의 중요한 주제이므로, 앞으로 애착의 안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며, 작동모델이 변화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애착의 변화의 방향이 불안정성에서 안정성으로 변화하는 조건을 밝히는 연구는 건강한 자아 및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고, 치료 및 상담 영역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영역에서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인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종단연구가 매우 어려운 한국의 연구 현실에서 지난 26년 동안 수집된 자료는 인간발달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 참고문헌

- 강진경(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진경, 최혜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지*, 34(4), 161-174.
- 김광웅, 김은실, 김기웅, 이성진(1976).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I): 제 1 차 연구결과. *행동과*

- 학연구, 9(6).
- 김종순(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김정화, 이성진(1992).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제 23차 연구결과. 행동과학연구, 25(2). 통권 163호.
- 나유미(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對부모 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연(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 및 물체영속성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과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이성진(1998).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의 이론적 정당화. 연구노트, 제 16권(제 1호).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성진, 김광웅(1976). 한국아동의 종단적 연구계획. 행동과학연구, 9(5). 통권 79호.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장영미(1978). 유아의 낮가림의 성질에 관한 실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1999). 성인기의 애착측정: 면접과 자기보고형 척도들에 관한 개관. 인간발달연구, 6(2), 147-168.
- 정영숙(1976). 한국유아의 낮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65). 자아개념검사. 코리아테스팅 센터.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 차재호(1985). 한국유아의 애착발달. 한국심리학회(편), 발달심리학연구의 최근동향(pp. 37-61). 서울: 한국심리학회.
-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31-142.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er, J. L., & Allen, J. P. (1987). Effects of maltreatment on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06-414.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

- 1025.
- Ainsworth, M. D.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 (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Vol. 4, pp. 113-136). London: Methuen.
- Baldwin, M. W. (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61-48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1984).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3).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1, 161-175.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0, pp. 3-3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ngle, R. G., & Bagby, G. J. (1992). Self-esteem and perceived quality of romantic and family relationships in young adul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40-35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icirelli, V. G. (1991). Attachment theory in old age: Protection of the attached figure. In K. Pillemer & K. McCar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pp. 25-42). NJ: LEA.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pp. 53-90). London: Jessica Kingsley.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Crockenberg, S. B. (1981). Infant initi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Epstein, S., & Erskine, N. (1983). The development of personal theories of reality. In D. Magnusson & V. L. Allen (Eds.), *Human developmen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pp. 133-147). New York: Academic Press.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iske, S. T., & Taylor, S. E. (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George, C., & Main, M. (1979). Social interaction in young abused children: Approach,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0*, 306-318.
- Goldfarb, W. (1945). Effects of psychological deprivation in infancy and subsequent stimul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2*, 18-33.
- Greenwald, A., & Pratkanis, A. (1984). The self.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Hazan, C. (1992). *Processes of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Orono, Maine.
-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pp. 151-178). London: Jessica Kingsley.
- Hollan, J. H., Holyoak, K. J., Nisbett, R. E., & Thagard, P. R. (1986). *Induction: Processes of inference, learning, and discovery*. Cambridge, MA: MIT Press.
- Jubb, C. M., & Kenny, D. A. (1981). Process analysis: Estimating mediation in treatment evaluation. *Evaluation Review*, 5(5), 602-619.
- Kihlstrom, J. F., & Cantor, N. (1983).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7, pp. 1-4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lohnen, E. C., & John, O. P. (1998).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 theory-based prototype approach.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115-140). New York: Guilford Press.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evy, K. N., Blatt, S. J., & Shaver, P. R. (1996). *Styles of romantic attachment and parental representa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y overview. *Development Psychology*, 28(6), 1006-1017.
- Main, M.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 (coherent) vs. multiple (incoherent) model of attachment.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127-159). London: Tavistock / Routledge.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6.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rkus, H., & Ruvolo, A. (1989). Possible selves: Personalized representations of goals. In L. A. Pervin(Ed.),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pp. 211-242). Hillsdale, NJ: Erlbaum.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73*(5). 1092-1106.
- Mikulincer, M., Florian, V., & Tolmacz, R. (1990). Attachment styles and fear of personal death: A case study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3-280.
- Ross, M., & Conway, M. (1986). Remembering one's own past: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histories.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pp. 122-144). New York: Guilford Press.
- Shaver, P. R., Collins, N., & Clark, C. L. (1996). Attachment styles and internal working models of self and relationship partners. In G. J. O. Fletcher & J. Fitness (Eds.), *Knowledge structures in close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pp. 25-62). Mahwah, NJ: Erlbaum.
- Shaver, P. 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D. Perlman & W. Jol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pp. 29-70). London: Jessica Kingsley.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Mental representations of parents in childhood, self-model in adolescence, and adult romantic attachment

Jean-Kyung Kang · Hye-Kyoung Choi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rigin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maternal strength hypothesis'. Longitudinal data from 36 participants(20 males; 16 females)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Childr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KIRBS), was analyzed. This data included attachment patterns at age 26, self-concepts at age 16,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t age 7.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ult romantic attachment was related to mental representations of parents in childhood. Specifically, mental representation of relationship with one's mother was related more strongly to adult attachment than to inner representation of relationship with one's father. Additional findings revealed self-model in adolescence appeare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representation of relationship with one's mother in childhood and romantic attachment in adulthood. In particular, warm and responsive representation of one's mother in childhood influenced positive self-model in adolescence which, in turn, influenced secure attachment in adulthood.